

광주시-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 뒤편 논의했다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서명운동 추진”

박광태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 공군비행장(제1전투비행단)의 역외 이전을 위해 가칭 '균용비행장 이전추진단'을 꾸리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전 주무부서인 국방부가 이미 이전부지를 잠정결정 하는 등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8일 오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김영진, 강은태, 김동철, 이용섭, 조영택, 김동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6명과 함께 '2009년 국비 지원요청 사업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갖고 공군비행장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균용비행장 이전추진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비행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도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광태 광주시장은 "추진단 구성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시장은 이어 "지난해 국방부 관계자와 면담결과 이미 공군비행장 이전 부지가 이미 잠정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전 대상지역) 전남도와 무안군의 반대 여론과 민원 우려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공군 비행장의 전남 지역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

현재 국방부는 '광주기지 이전 타당성 및 민원해소 방안 검토 용역'을 발주, 10월께 완료할 계획이다.



8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2009년 국비 지원 요청사업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광주지역 출신 의원들이 박광태 시장의 국비 현안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00만인 서명 청와대 전달... '5+2 광역경제권' 재정 불균형 우려도

이와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지역 국회의원들은 호남고속철의 조기완공을 정부에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새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과 관련, 호남권에 광주·전남북 한 개 권역이 있는 데 반해 영남권에 2개 권역이 설정돼 있는 등 불균등한 권역과 예산 분배 등에 대한 재정조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용섭 의원은 "새정부에서 2012년까지 호남고속철을 완공키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소요예산 10조를 투입하려면 매년 2조 5천억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내년 편성에

산은 고작 4천500억밖에 안된다"며 "호남고속철의 조기완공에 대한 촉구, 정치권, 시민들의 강력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청와대에 전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광태 시장은 "호남고속철 조기완공을 광주 전남 공동 속원사업으로 광주시·전남도와 전남도가 협력하고 때문에 박준영 전남지사와 상의해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과 관련, 영남지역에 2개 권역이 설정돼 영·호남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데 공감, 사업권역 재검

토 등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조영택 의원은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자체에 사업예산이 배분될 경우 권역이 2개 설정돼 있는 영남과 1개뿐인 호남의 차별이 심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앞서 박 시장은 내년 정부예산과 관련, 문화복합단지 조성(3조6천억원),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800억원), 반도체 육성사업(900억원) 등의 사업이 기호 재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누락되거나 재검토 되고 있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민주당 당직자 구조조정 바람

사무처 4분의 1 대기 발령

민주당이 8일 사무처 당직자의 4분의 1을 대기발령하는 구조조정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인사로 통해 전체 217명 중 극장급 등 164명은 보직을 전 남기고 53명은 대기발령했다.

대기발령자 53명 가운데 10여명이 시도당 사무처장으로, 다른 10여명은 현재 당 삼크로인 '한반도전략연구소'를 대체할 새 연구소로 차근 차근 맡겨줄 예정이어서 결론적으로는 30명(15%)이 당을 떠나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 같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총선 패배로 의석수가 반토막 나면서 국

고보조급이 격강, 기존의 '거대 중앙당'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때문이다.

김영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심층면접과 조직평가, 주변평가 등의 기법을 사용해 결과를 배제한 투명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중앙당 당직자와 16개 시도당 사무처장의 순환근무 체제가 도입되는 등 중앙-지방간 교류를 강화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이번 인사에서 비주류 계급 구 민주계 출신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새로 임명된 극장급 당직자 19명 가운데 구 민주계 쪽 인사는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필뉴스

광주 동구의회의 의장단 개성관광 물의 사과

유대명 광주시 동구청장, 구청 공사로 유대명 광주시 동구청장 등 개성관광을 비밀리에 다녀와 물의를 빚은 광주시 동구의회의 의장단이 8일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고수용 동구의회 의장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이번 개성 관광으로 동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의장은 "후반기 원구성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집행부와 의회가 유대명 광주시 동구청장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김주경기자 jinews@kwangju.co.kr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여행으로 인한 구민들의 질책을 교훈 삼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처신에도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의장 등 동구의회 의장단 5명은 최근 유대명 동구청장과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비밀리에 개성 관광을 다녀왔으며, 동구청의 관공사를 수주한 업체 관계자 2명도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소속인 유대명 동구청장과 이들 구의원 5명이 시장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주경기자 jinews@kwangju.co.kr

“국회 무시, 도 넘었다”

야 3당 합동 의총... '정부 규탄 결의문'

여야 갈등 속 월요일 국회의장 원구성 중재 협상 주목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은 8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쇄고기 국정특위 참석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의원총회를 개최, 이명박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배제한 부분 원구성을 시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여야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날 예정된 한나라당의 국회법 개정안 제출이 김영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11일로 연기됐으며 같은 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적극적인 원구성 협상 타결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야3당의 이날 합동회의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여당 의원) 숫자를 말고 그러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총리, 심지어 장관들까지 국회를 안하무인격으로 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5, 6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한국 역사의 시곤편을 20년전으로 후퇴시키려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어떻게 청와대가 청문회 일정을 전화 한통으로 파시겠습니까"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가"라면서 "정권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해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 3당은 이날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파괴하고 인사청문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실질적 단독 원구성을 강행하겠다는 각오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 몫으로 배분된 삼임위원장만이라도 뽑아 민생현안과 국정과제를 처리하겠다"며 한나라당 단독으로 원구성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국회법을 손질하면 야당의 협조 없이도 이르면 오는 15일까지 삼임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영오 국회의장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여야 합의에 의한 원구성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오는 11일 야당 원내대표들과 여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접촉해 원구성 협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일 민주당 광주시당 김동철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박광태 시장 등이 김 위원장의 취임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주당 광주시당 김동철 위원장 취임

민주당 광주시당 김동철 위원장은 8일 오후 5시 상무지구 시장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주당개혁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에는 박광태광주시장, 민주당 소속 박순수·조영택·김영진·김기정·김재균·이용섭 국회의원과 이윤정 남구 지역위원장, 5개 구청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시장은 오후 4시 시장 회의실에서 제1차 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와 윤리위

원회 구성 등 조직정비 방안을 확정지었다. 시장은 특히 윤리위원회를 통해 비리 지방 자치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계획하고 있어, 지방정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편 김동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김재균·조영택 의원 등 100여명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 제1관 대의원대회를 통해

래 당조직을 정비하고 업무사항을 점검하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왔다. /김주경기자 jinews@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062) 220-0553 FAX: (062) 227-9500

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2008년 8월 9일) '갑' 주식회사 태연건설, '을' 주식회사 대진건설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 공고 (2008년 8월 6일)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1,500,000,000원을 금600,000,000원으로 감소시키고, 그 반으로 발행주식 총수 150,000주

신원전자정밀 주식회사 (2008년 8월 9일) 광주광역시 광안구 용동 670-7 대표이사 박 일 만

산행안내 (8월 10일(일)부터 8월 17일(일)까지) 산행일정, 신청방법, 문의처 등 상세 안내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연설, 리더쉽, 설득력 향상과정 (8월 13일부터 8월 29일까지) 교육목표, 모집인원, 교육기간 등 상세 안내

입대 (임대 총, 지하 2층, 지상 4층) (2008년 9월 16일 ~ 12월 29일) 교육기간, 교육과정, 원서교부 및 등록시간 등 상세 안내

무등빌딩 (위치: 광주 동구 금남로 2가 20-2) (062) 412-6230